

Japan Weekly Digest

2012. 7. 07 ~ 2012. 7. 13

① 주간 경제 초점

- 일본재생전략 원안 발표

② 산업 및 통상 전략

- 일본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 최저 수준
- 일본기업, 신흥국의 저소득층 겨냥
- 일본기업, 세일가스 관련사업 확대

③ 일본기업의 협력 동향

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



협회 한일경제협회
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① 주간 경제 초점 : 일본재생전략 원안 발표

- 2020년까지 일본의 성장전략을 담은 ‘일본재생전략’ 원안이 11일 발표. 의료, 환경 등 11개 전략분야에서 규제완화 등을 통해 630만명의 고용창출을 목표
-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FTA를 체결, 대상국과의 무역비율을 현재의 18.7%에서 80%로 끌어올릴 계획

□ 두터운 중간층 육성을 통한 경제 회복

- 일본정부는 2020년까지 평균 명목성장을 3%, 실질성장을 2%의 목표를 설정
 - 소비세 증세를 포함한 사회보장과 세제의 일체개혁 법안을 통과시켜 재정을 재건시키고, 젊은 층의 고용활성화 등 두터운 중간층을 육성하여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전략
-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만으로는 불충분하며, 민간부문의 기술혁신과 종래의 발상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
- 일본은행은 디플레 탈출이 확실해질 때까지 강력한 금융완화를 지속한다는 방침으로 2012, 2013년도의 2년간을 집중 디플레 탈피기간으로 설정, 규제개혁이나 세제개정 등 정책을 총동원

□ 의료·환경·관광 등 전략적 성장 분야

- 20~34세의 젊은 층 취업률을 2020년에 2010년 대비 3.4포인트 증가한 77%로 끌어올리고 젊은 층의 프리터수도 2011년 176만명에서 2020년에 124만명으로 줄인다는 목표
- 의료·간병·건강 관련 분야는 의약품, 의료기기의 개발, 재생의료 등의 분야에서 성장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, 전략의 기둥으로 설정, 50조엔 시장 창출
 - 2020년까지 혁신적인 의약품, 의료기기, 재생의료, 맞춤형의료 등의 분야에서 1.7조엔, 신규 고용 3만명을 목표. 건강 관련 서비스산업에서 약 25조엔, 의료기기나 헬스케어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 등에 의해 약 20조엔의 시장을 창출
- 환경 분야도 2020년도까지 50조엔 이상의 관련 신규 시장을 개척, 140만명의 고용을 창출

- 2015년도까지 연료전지차의 시장투입을 목표. 2020년에는 신규 판매에서 차지하는 차세대차의 비율을 50%까지 높이는 한편, 신축 주택의 에너지절약 기준달성을 100%를 목표로 하고 있음
- 관광분야에서는 저가항공회사(LCC)의 신규진입 촉진책 실시 등으로 여행소비액을 2015년도까지 30조엔 규모를 확대한다는 목표
- 방일 외국인 여행자수도 2020년에 2011년 대비 약 4배인 2500만명으로 늘인다는 목표임

□ FTA체결국과의 무역비율 80%까지 대폭 확대

- 아시아전략에서는 일본의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FTA체결국의 비율을 현재 18.7%에서 2020년에는 80%까지 끌어 올리는 한편, 신흥국·개도국 수출시장규모도 대폭 확대, 2020년에 19.9조엔을 목표로 하고 있음

□ 신 성장전략과의 차이

- 일본재생전략은 노다 내각의 경제성장전략으로 작년 3월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일본재생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음
- 작년 10월, 각료와 경제계 대표로 총리 직속으로 국가전략회의를 설치하여 논의를 개시
- 2020년까지 연평균 명목 3%, 실질 2% 이상의 경제성장율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간나오토 내각의 신성장전략을 발전시켜 환경·의료·간병·관광 등을 전략적 분야로 설정하고 있음
- 간 나오토 내각의 신성장전략에서 핵심사항으로 제시했던 전기자동차 보급촉진,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비자 신설, 법인세율 인하 등이 성과가 없자, 전면적인 재평가를 거쳐 수치 목표나 대책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작업이 이루어짐

□ 과제 및 평가

- 그러나 이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은데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심사간소화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안전 확보 측면에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음
- 통상분야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PP)에 대하여 교섭참가를 위한 관계국과의 협의를 추진하라는 종래의 견해를 답습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

② 산업 및 통상 전략

□ 일본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 최저 수준

- 일본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있음. 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는 0.989%로 1993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1%를 밑돌고 있으며 신용 있는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 금리도 1%를 하회
 - 저금리 하에서도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대출받아 투자하는 데에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임
- 무엇보다도 용자대상이 부족하여 기업의 자금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은행에 금이 누적되는 자금잉여상태로 대출금리가 하락하는 구도
 - 예금을 재원으로 용자하는 것이 은행이 본업이나, 법인에 대한 용자는 5월 시점에서 262조엔으로 피크였던 1995년의 70% 수준
- 일본은행이 금융완화를 확대하여 대기업 용자 기준인 2~3년짜리 시장금리를 인하한 것도 대출 금리를 하락시키는 원인
- 현재 일본경제는 견조한 편이나 장기적인 성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 때문에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서까지 대형투자에 나서려는 의욕은 부족한 상황
- 회사채금리도 신용이 높은 기업들이 발행하는 기간 10년짜리 회사채금리가 1%를 하회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
 - 그러나 자금의 용도는 회사채 상환이나 차입금 상환 등 재무상태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신규투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

□ 일본기업, 신흥국의 저소득층 겨냥

- 일용품과 식품류의 아시아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른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BOP(Base of Pyramid)시장을 공략하는 일본기업이 성장을 지속
 - 상품·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장래 중간소득층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향후에도 아시아시장에서 성장투자를 계속할 것으로 보임

- 노무라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연간소득이 43만엔 미만인 BOP층은 2010년에 약 41억명, 시장규모는 4.3조 달러로 추계
- BOP층의 소득이 꾸준히 상승하여 2030년에는 중간 소득자층의 60%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
- 맨담은 인도네시아에서 시장점유율 70~80%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, 3~6그램 정도의 소용량 상품을 구매하는 현지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판매방식으로 대응
- 아지노모토는 일본에서 75그램용으로 판매되는 용량을 인도네시아에서는 0.9그램으로 나누어 판매하는 전략
- 가격은 0.42엔으로 설정, 영업담당자는 1700명 배치, 거미줄 같은 판매망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있음
- 야쿠르트는 아시아에서 27,000명의 방문 판매망을 구축, 판매량을 꾸준히 늘려나가면서, 인도네시아와 중국에 증산 투자를 지속
- 유니참은 2013년 인도네시아에 유아용 종이기저귀 및 생리용품 공장 건설 예정. 인도에도 2013년에 제2공장을 건설하는 등 약 350억엔을 투자하여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

□ 일본기업, 셰일 가스 관련사업 확대

- 신형 천연가스인 셰일가스를 둘러싸고 일본상사 등이 조달확대를 위해 세계 개발상황을 주시하면서 생산설비나 관련 부자재 분야에서 사업기회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
- IHI는 미국기업의 사업부문을 매수하여 가스의 정제설비 건설에 참여하고 있으며, 소지츠는 가스 굴착에 필요한 희소금속의 광산권익을 취득
- IHI는 노르웨이의 중공업분야 대기업인 쿠바나의 「쿠바나 아메리카」의 육상 플랜트 건설부문을 매수
- 쿠바나 아메리카는 미국의 중견플랜트 건설기업으로 셰일가스의 생산설비 건설 관련사업 도급 실적이 있음
- 암반에서 뽑아낸 셰일가스를 정제하여 불순물을 제거, 액상으로 가공하는 설비 설계에서 건설에 이르기까지 관련 사업을 도급. 3년 후 연간 200억엔의

매출을 목표

- 소지츠는 바라이트라고 하는 희속 금속의 광산권익을 멕시코에서 취득. 바라이트는 셰일가스 등을 굴착할 때 나오는 흙이나 바위를 제거하는데 사용
 - * 바라이트: 비중이 큰 것이 특징으로 암반을 뚫어 생기는 구멍에 물을 섞은 바라이트를 주입하면 흙이나 바위가 위로 떠올라 제거하기 쉬움
- 바라이트의 생산량 70%를 중국이 점하고 있으며 최근 1년간 가격이 70%정도 상승하였음. 소지츠는 수년 후 세계 최대급의 광산 권익을 가진 기업주식의 49%를 매입, 수년 후 세계수요의 약 10% 확보한다는 목표
- 미국 에너지정보국에 의하면 기술적으로 회수가 가능 한 셰일가스는 세계에서 6622조 입방피트. 상업생산이 시작된 북미 지역이 이중 35%를 차지 중국, 아르헨티나, 폴란드 등에도 매장량이 풍부함

< 최근 일본기업의 셰일가스 관련사업 추진 동향 >

생산 개발	IHI	정제·액화 설비의 설계·건설 사업 참여
	소지츠	굴착에 필요한 희소금속 바라이트의 권익 취득
	스미토모 백라이트	채굴용 소재, 페놀 수지를 30% 증산
수송	후루카와스카이	LNG운반선용 알루미늄후판 생산을 2015년까지 3배로
조달	이토추상사	미국 석유가스 관련 대기업을 미국 펀드사와 공동으로 4500억엔에 매수
	미쓰비시 상사	캐나다에서 북미 최대 가스전 개발에 참여 *투자액 4800억엔
	마루베니	미국 텍사스주의 권익 35% 취득, 총투자액 약 100억엔

출처: 일본경제신문(2012.7.13)

③ 일본기업의 협력동향

일본기업	발표일자	업종	대상국가/기업	사업형태/내용
동경일렉트론	2012.7.7	차세대반도체	미국/IBM	기술제휴/차세대반도체양산기술의 공동개발
브리지스톤	2012.7.7	타이어	폴란드	직접투자/생산능력 50%증강, *투자규모 118.6억엔
세콤	2012.7.8	정보·시큐리티	미국/IBM	업무제휴/시스템·시설감시서비스 제공
대성건설	2012.7.8	건설	미국/CH2M힐	업무제휴/제염사업 관련 노하우 활용
아사히그룹홀딩스	2012.7.10	청량음료	인도네시아/인도푸드	자본제휴/합작기업 설립 *과반 출자
다이세이제약	2012.7.10	일반용 의약품	멕시코/CICSA	직접투자/기업매수 *매수가격 수십억엔
미쯔비시상사	2012.7.10	부동산	중국/금지집단	자본제휴/대규모맨션건설사업 *40% 출자
이데미츠	2012.7.10	기능성 수지	대만/대만플라스틱그룹	자본제휴/기능성수지합작생산 *50% 출자
이토추상사	2012.7.11	비료	말레이시아/애그로매트홀딩스	자본제휴/합작투자 *25%출자(총규모 50억엔)
유니참	2012.7.12	종이거저귀, 생리용품	인도, 인도네시아	직접투자/신공장건설 *투자규모 250억엔
IHI	2012.7.13	플랜트	미국/쿠바나아메리카	직접투자/기업매수 *매수가 수십억엔
소지츠	2012.7.13	바라이트	멕시코	직접투자/광산 권익 *주식 49% 매입
이온·미쯔비시식품	2012.7.13	식품	중국	직접투자/공동출자 *80%출자
동양탄소	2012.7.13	흑연가공	한국	직접투자/태양전지 및 발광다이오드 제조설비에 사용되는 흑연의 가공거점 설립 *투자규모 15억엔
덴츠	2012.7.13	광고	영국/이지스그룹	직접투자/기업매수 *매수가격 3,955억엔

* 자료: 일본경제신문기사에서 정리

☐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

(1) 『외부연대의 강화 : 중견기업에서 보는 일본경제의 새로운 가능성』

21세기정책연구소, 7월7일

*출처:<http://www.21ppi.org/pdf/thesis/120706.pdf>

(2) 『중국의 소비자극책이 일본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』 다이와 종합연구소, 7월11일

*출처:<http://www.dir.co.jp/souken/research/report/japan/sothers/12071001sothers.html>

(3) 『일본재생전략(원안)』 국가전략실, 7월12일

*출처:<http://www.npu.go.jp/policy/policy04/pdf/20120711/shiryo4.pdf>

(4) 『TPP의 불평등한 참가절차와 일·미FTA의 필요성』 다이와종합연구소, 7월12일

*출처:<http://www.dir.co.jp/publicity/column/120711.html>

(5) 『2011년 중국의 희토류산업동향』 JOGMEC, 7월13일

*출처:http://mric.jogmec.go.jp/public/current/12_39.html